

“편혜 못참아”... 순천 공무원, 김문수 의원 사과 요구

김의원 SNS “공무원 행감 방해” 공무원 편혜 연상되는 글 올려 노조 “비상식적인 모독 발언” 시민단체 등과 연대 투쟁 방침

순천시 공무원노조가 공무원을 이익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에 “시장과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온갖 어려운 법령과 이유를 들어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합니다. 의심스러운 지역 예산을 따내려면 시장이나 공무원들과 음흉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의 글을 올렸다.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소각장(공공자원화시설) 설치에 관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접수 요구권이 보류되자 다음 날 이같은 글을 게재했다.

김 의원의 SNS에 따르면 그는 “당당한 지역예산은 당당하게 호소해서 받아내면 되는데 뭔가 의심스러운 지역예산을 따내려면 일부 시장이나 공무원들과 음흉

[생방송]

김문수 국회의원은 비상식적 모독 발언에 대하여 순천시 공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지난 8월 30일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소각장 설치에 관한 순천시의회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8월 31일 김문수 국회의원은 개인 페이스북에 “시장과 공무원들은 행정사무감사 조사를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온갖 어려운 법령과 이유를 들어 행정사무조사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의심스러운 지역 예산을 따내려면 시장이나 공무원들과 음흉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시 공직자들이 시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협박하는 것처럼 글을 올렸다.

우리시 공직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장과 짜고, 또는 음흉한 거래를 통해 각종 지역예산 등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해 버렸다. 이는 우리시 행정을 심각하게 폄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이며 2천여 공직자를 비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

이 발언으로 인해 우리시 행정 신뢰도가 얼마나 떨어질 것이며 공직자들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애써 쌓아온 신뢰와 청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공직자로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

공무원 노조 순천시지부가 김문수(순천광양곡성구례 갑) 국회의원이 공무원을 이익 집단으로 매도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 홈페이지

한 거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시장과 공무원은 그러지 않다”며 “이러한 것들은 시장이나 공무원의 캐비닛에 넣어두고 임기중에 코가 꺾여 행정사무조사 시켜버린 시정에 반대하는 의정활동을 전혀 못하게 되고 결국 의원이나 시장이나 공무원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고 만다”고 적었다.

공직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태훈 순천시 행정지원국장은 김 의원 글에 댓글을 달고 “공무원이 음흉한 거래를 하고, 행정사무 감사를 방해하는 큰

거를 제시하라”며 “모든 공무원을 도둑 취급하는 의원은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순천 지역구 국회의원이 맞냐”며 “기대가 컸는데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낀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노조도 지난 3일 성명서를 내고 “행정을 심각하게 폄하한 행태로 2000여 공직자를 비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었다”며 “비상식적 모독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공무원 노조는 “시 공직자들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것을 시장과 짜고, 또는 음흉한 거래를 통해 각종 지역예산 등을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매도해 버렸다”며 “이는 우리시 행정을 심각하게 폄하하는 비상식적인 행태이자 2000여 공직자를 비하할 뿐 아니라 심각한 모욕감을 안겨주고 있다”고 성토했다.

문병희 공무원 노조 순천시지부장은 “김 의원 발언으로 인해 시 행정 신뢰도가 떨어지고, 공직자들의 명예가 얼마나 실추될 것인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동안 애써 쌓아온 신뢰와 청렴이 그대로 무너져 내려 공직자로서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 지부장은 “앞으로 죄 없는 공직자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는 안된다”며 “한순간에 신뢰가 무너지면 그것을 회복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노조 순천시지부는 “상처받은 순천시 공직자들에게 공개 사과하라”며 “합당한 내용의 사과가 없을 경우 순천시 청 전 공직자와 시민, 인권단체 등과 연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순천=배서준 기자

보성물, 최대 30% 특별할인행사 1만원 이상 무료배송 등

보성군은 추석을 맞아 오는 10일까지 7일간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보성물’에서 특별 할인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 할인행사는 ‘보성물’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전 상품 20% 할인, 전상품 무료배송(1만원 이상 구매시), 롯데 이벤트(2000~10만 포인트 적립), 출석 체크 적립금 2배 이벤트(기존 100원) 등 갑진년을 맞아 값진 혜택을 주는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제12회 보성세계차박람회와 함께하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6일부터 8일까지 축제 현장에서 보성물 30% 할인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는 행사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차 판매존 및 체험존에 위치한 13개 부스에서 녹차, 홍차, 블렌딩차 등 차(茶)류에 한정하여 30% 할인받을 수 있다.

현재 ‘보성물’에는 160여 개 업체, 1100여 개 품목이 등록돼 있으며 ‘녹차미인 보성쌀’을 비롯해 청정 자연에서 키운 녹차, 키위, 곱막, 녹돈, 울베벌 등을 구매할 수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할인행사는 지역 농가들을 돕고, 소비자들이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풍성한 선물이 가득한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되시고 보성군 농특산물에 많은 관심과 홍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양항의 날’ 지정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광양시는 ‘광양항의 날’ 지정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4일 밝혔다.

광양항은 수출입 물동량 국내 1위, 총 물동량 2위의 항만으로 지역경제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산업에 대한 시민 체감도와 비교했을 때 항만산업에 대한 체감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항만도시로서의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광양항의 날’ 지정 문제가 다시 화두로 떠오른 것은 지난 7월 16일 개최된 ‘광양항 상생협력협의회’에서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하던 위원들은 광양항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광양항의 날’ 지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했다.

광양시는 지난 회의의 후속 조치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설문조사는 항만산업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지도를 측정하는 질문, 광양항의 날 지정에 대해 찬반 의견 질문, 지정 날짜에 관한 질문 등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했다.

지정 날짜는 4월 17일(삼일항 개항일, 광양항 개항 당시 삼일항이 광양항에 흡수통합 됨)과 12월 5일(광양항 개항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설문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오는 30일까지 네이버 폼(https://naver.me/5Gppz2Tr)에 접속해 주어진 질문에 답을 하면 된다. 네이버 폼은 광양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광양=안영준 기자



가을꽃 7종 식재 ‘구슬담’ 여수시 중앙동

여수시 중앙동(동장 강재희)이 지난 3일 자생단체와 함께 관내 자투리땅 및 마이카 화분에 가을꽃을 식재하고 추석맞이 청결 활동도 병행 실시했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이번 가을꽃 식재에는 중앙동 주민자치회, 르네상스실천본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민센터 직원 등 60여 명이 담당 구역을 정하여 작업을 실시했으며, 맨드라미, 메리골드, 셀비어 등 가을꽃 7종 4000여 본을 식재했다.

이날 꽃 심기는 ‘여수형 작은정원 가꾸기’ 사업과 연계하여 고소천사벽화마을, 대첩비자, 등기소 뒤편 정원 등에 철쭉, 남천 300본을 가을꽃과 어울리게 심어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추석 연휴 상수도 급수 대책 편성 여수시, 14~18일 비상근무

여수시는 추석 연휴 기간 시민, 귀성객, 관광객에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도 물을 공급하고 시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추석 명절 대비 상수도 급수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급수 상황을 상시 감시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비상 급수를 위해 5개 반·33명, 9개 대형업체·27명으로 상수도 비상대책반을 편성·운영한다.

누수·단수 발생 시 방송, 문자, SNS를 통해 시민에게 신속히 알리고 대형업체가 출동해 복구할 계획이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급수 차량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식사를 준비하고 있다. 봉사센터는 오는 11월까지 순천의료공원 일원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한다. 순천시 제공

순천시자원봉사센터, 어르신 식사 제공 봉사활동

(사)순천시자원봉사센터(최정원 센터장)가 11월까지 매주 화요일 순천의료공원에서 우리 지역의 식사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년 하반기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운영한다.

4일 순천시자원봉사센터에 따르면

참! 좋은 사랑의 밥차 봉사단 외에 15개의 봉사단체와 협력해 밥차 지원 및 재능 나눔 음악공연, 노무상담, 의료진단 서비스 등 급식 현장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랑의 밥차는 매년 약 2만명분의 식사

를 지원했고 무료 급식 지원뿐만 아니라 재난재해 발생 시 복구 인력과 재난민들의 식사를 지원하고 있다.

최정원 센터장은 “매주 사랑의 밥차에 참여해 주시는 많은 봉사단체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자원봉사 공동체문화 형성에 아낌없는 후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나눔 가치 향상 ‘여수 벼룩시장’ 열린다

7일 거북선공원 잔디 광장일원 도서 등 여수시민 누구나 참여

여수시민 누구나 중고 의류, 도서, 장난감, 잡화, 가전제품 등을 자유롭게 판매·구매하거나 교환할 수 있고 행사 후 물품·수익금을 자율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여수 벼룩시장이 첫 개장한다.

4일 여수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첫 ‘여수 벼룩시장’이 오는 7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거북선공원 잔디광장에서 개

최된다. 행사 취지에 맞지 않은 새 상품이나 음식물, 의약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사장에는 재활용 자원을 이용한 팔찌 만들기, 전통놀이·캘리그라피 체험 등 다채로운 부대행사로 마련된다.

지속되는 고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가격 표시제 준수 등 물가안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착한가게업소 홍보관을 운영해 시민들의 ‘착한 소비’를 유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여수 벼룩시장은 어

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 단위의 참여자들이 많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경제를 배우고 직접 기부하며 나눔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의미 깊은 행사이다”며 “자원의 선순환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 벼룩시장’은 7·8월 혹서기를 제외하고 11월까지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열린다. 지난 6월 벼룩시장에는 154개 팀이 참여해 1800여 개의 중고 물품을 거래했다. 여수=이경기 기자